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in the feast *day*, many believed in his name, when they saw the miracles which he did. ²⁴But Jesus did not commit himself unto them, because he knew all *men*. ²⁵And needed not that any should testify of man: for he knew what was in man. [1 Sam. 16:7, 1 Chr. 28:9; Mat. 9:4; Mark 2:8; ch. 6:64; 16:30; Acts 1:24; Rev. 2:23]

Nicodemus visits Jesus

3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²The same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unto him, Rabbi, we know that thou art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man can do these miracles that thou doest, except God be with him. ³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⁴Nicodemus saith un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the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⁵Jesus answered,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⁶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⁷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⁸The wind bloweth where it listeth, and thou hearest the sound thereof, but canst not tell whence it cometh, and whither it goeth: so is every one that is born of the Spirit. ⁹Nicodem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¹⁰Jesus an-

swered and said unto him, Art thou a master of Israel, and knowest not these things? ¹¹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We speak that we do know, and testify that we have seen; and ye receive not our witness. ¹²If I have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e believe not, how shall ye believe, if I tell you of heavenly things? ¹³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¹⁴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even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¹⁵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¹⁶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¹⁷For God sent not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¹⁸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¹⁹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i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²⁰For every one that doeth evil hateth the light, neither cometh to the light, lest his deeds should be reproved. ²¹But he that doeth truth cometh to the light, that his deeds may be mad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John's testimony to Jesus

22 After these things came Jesus and his disciples into the land of Judea; and there he tarried with them, and baptized. ²³And John also was baptizing in Aenon near to Salim, because there was much water there: and they came, and were baptized. ²⁴For John was not yet cast into prison. ²⁵Then there arose a question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the Jews about purifying. ²⁶And they came unto John, and said unto him, Rabbi, he that was with thee beyond Jordan, to whom thou barest witness, be- hold, the same baptizeth, and all men come to him. ²⁷John answered and said, A man can receive nothing, except it be given him from heaven. ²⁸Ye yourselves bear me witness, that I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that I am sent before him. ²⁹He that hath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ich standeth and heareth him, rejoiceth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is my joy therefore is fulfilled. ³⁰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³¹He that cometh from above is above all: he that is of the earth is earthly, and speaketh of the earth: he that cometh from heaven is above all. ³²And what he hath seen and heard, that he testifieth; and no man receiveth his testimony. ³³He that hath received his testimony hath set to his seal that God is true. ³⁴For he whom God hath sent speaketh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th not the Spirit by measure unto him. ³⁵The Father lov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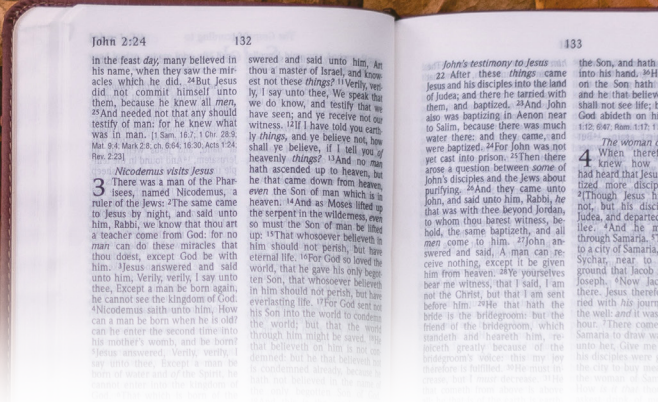
the Son, and hath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 ³⁶He that believeth on the Son hath everlasting life: and he that believeth not the Son sha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th on him. [ver. 15, 16; ch. 1:12; 6:47; Rom. 1:17; 1 John 5:10]

The woman of Samaria

4 When therefore the Lord knew how the Pharisees had heard that Jesus made and baptized more disciples than John, ²(Though Jesus himself baptized not, but his disciples,) ³He left Judea, and departed again into Galilee. ⁴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⁵Then cometh he to a city of Samaria, which is called Sychar, near to the parcel of ground that Jacob gave to his son Joseph. ⁶Now Jacob's well was there. Jesus therefore, being wearied with his journey, sat thus on the well: and it was about the sixth hour. ⁷There cometh a woman of Samaria to draw water; Jesus saith unto her, Give me to drink. ⁸(For his disciples were gone away unto the city to buy meat.) ⁹Then saith the woman of Samaria unto him, How is it that thou, being a Jew, askest drink of me, which am a woman of Samaria? For the Jews have no dealings with the Samaritans. ¹⁰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er, If thou knewest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saith to thee, Give me to drink; thou wouldest have asked of him, and he would have given thee living water. ¹¹The woman saith unto him,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from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인들은 다른 전통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성찬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단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일치와 평화의 정신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연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가 특별헌금에 함께 참여하며, 이 헌금은 장학금, 훈련, 멘토링을 통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매년 교단적으로 행해지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헌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근거한 본 설교자료를 각 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예배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십시오.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와 [예배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위한 자양분”

퀴즈 하나 내 보겠습니다: 1975년에 나온 이 패스트푸드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노래를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 보세요.

“두 개의 순 쇠고기 패티... 특별 소스...
상추... 치즈... 피클... 양파... 참깨 빵”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외우실 수 있나요?

-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 우상을 만들지 말라.
-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살인하지 말라
- 간음하지 말라
- 도둑질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들었습니다. 다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크리스천 포스트의 2007년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이 십계명보다 자기들이 먹는 햄버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80%는 순 쇠고기 패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열 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앙에 토대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분명, 거룩한 삶을 위한 이 지침은 패스트푸드보다 더 만족스럽고, 생명을 주며,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 여섯 가지는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공동된 가치관 즉 우리가 맺는 관계와 매일의 업무에 대한 언약을 제공합니다.

각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각 율법 조항은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나타내고 도덕적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패스트푸드 버거의 재료만큼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서로와 또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 안에 살 때 영양분이 풍부하고 유익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칙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사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을 통해,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 교단들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의와 은혜를 갈망하며 성찬 테이블로 나아올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특별선교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꿈이 믿음 안에 형제자매 된 이들의 소망과 꿈에 상호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훈련의 기회와 장학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학생들에게 허락하신 장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학생들이 교육, 의학, 신학 또는 인권 등의 분야에서 세계 각지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꿈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함께 주는 영향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학자들은 십계명과 같이 근본적인 규칙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 합니다.

이 학생들은 신앙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에서도 제자의 정신을 그들의 업무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37-38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교회 공동체의 후원을 받아 학생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계성찬주일에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깨닫고, 번성하고 건전하며 건강한 지속적 사랑에 투자하면서 생명을 인정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그 기본 계명들을 뛰어넘어 그 정신에 따라 생활합니다. 우리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닌 풍성하고 놀라운 삶으로 이끄는 평화로운 조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져서 그들의

온전한 의미와 목적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도덕적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인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십계명은 혼란과 위기 속에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하나님께서는 매 발걸음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최고의 자아가 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라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번 주에 십계명을 공부해 보세요. 진정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토대가 되는 이 규범이 얼마나 밀도 있게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성찬을 받으러 은혜의 식탁에 나아올 때, 거룩한 삶을 향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시는 영양가 있는 식탁을 경험하십시오.

